

“각색교사모임”을 찾아서*

이번 호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각색교사모임”을 소개합니다.



G — 먼저 각색교사모임(이하 교사 모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각색교사모임은 2017년 구로중에서 만들어진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연구 모임에서 출발하여, 2020년 구로중 교사들이 외부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구로·금천·영등포 지역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연구 모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한울중학교 교사 6명, 영등포 지역 3명 그리고 구로 지역 교사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을 받아 운영됩니다. 현재 모임 회장은 대림중학교의 노정임 선생님입니다.

구로·금천·영등포 3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밀집되어 있고, 중도 입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비율도 높습니다. 중국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한창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클 시기에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집단이 교육받는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서로 갈등이 아니라 공존을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의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공부하고, 학교 밖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을 엮으면서, 각색 모임이 출발되었습니다.

* 본 인터뷰는 각색교사모임 회장 노정임(대림중학교) 교사와 회원 박복희(한울중학교), 서유정(한울중학교), 이선민(구로중학교), 한채민(신길중학교) 교사와의 서면 인터뷰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밖 단체들과의 모임은 각색모임으로, 타 학교로 이동한 교사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 교사들의 교원학습공동체는 각색교사모임으로 정리되었지요. 올해로 3년째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로, 영림, 대림, 한울, 천왕, 신길중학교 교사들과 다+온센터 파견 교사와 장학사까지 포함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G — 교사 모임의 특징, 주요 활동(추진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작년까지는 다문화교육에 관련한 독서토론,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가의 강연 듣기, 학교별 다문화교육 진행 내용, 수업안의 공유,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고민 공유, 투소프 카(학교밖 청소년 학교)와 다+온 센터 방문하기 등을 실시하면서 매월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카톡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감수성을 키우며 학교 안에서의 교육 실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G —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류 보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열린 시각과 포용적 태도를 기르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교육을 통해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성과 그 실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다른 문화에 대한 무시, 배척,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이해가 포용의 자세를 갖게 하거나, 더욱이 나와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갈등이나 충돌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화 차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는 모든 갈등 해결의 능력은 관용과 토론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가 밑바탕에 있어야 가능하고,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문화 갈등, 문화 차별, 이주민에 대한 무시, 차별 등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적 상황을 주제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민(구로중)

방향성은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며,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께서는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학교에서 살펴보고, 학생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찾으며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교사가 다양한 특성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관련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서유정(한울중)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으로 진행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기본 방향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협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의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밝힌 문화 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그를 실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으로 진행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 또한 그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정임(대림중)

학교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교육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급 약속을 정할 때 다문화적인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넣는다거나, 교육청, 교육부 사업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채민(신길중)**

큰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교 안의 일상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보행 장애인도 재난 대응 훈련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를 못해도 조별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안 차별은 교사들의 일상적 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교사들의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자리

를 더 많이 가지고,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더불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이러한 감수성이 확산되는 사업들과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외부의 각색모임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복희(한울중)**

G — 앞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자리 잡고, 관련 내용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특히 종교 관련 문화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 보편주의 등의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못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등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현재의 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저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논쟁 수업 형태의 교육 방법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민(구로중)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으로 진행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는 ‘인권 및 평등, 대화, 시민성, 문화적 민감성, 존중, 관용 및 포용, 상호 의존성, 사회적 정의, 차이, 공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들이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수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생활 속에서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적인 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정임(대림중)**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은 없는가,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가 등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가치를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험학습, 수련활동, 징검다리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 야외활동에 대해 점검하는 것, 학교 생활 규정 살펴보기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민(신길중)**

다문화교육은 어떤 교과에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어 교과의 주인공이 다양한 소수자이거나, 다양한 배경을 갖는 것으로도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우리말로 옮기시오’를 ‘한국어로 옮기시오’로, 통신문에서 ‘학부모님께’에서 ‘보호자님께’로 옮기는 소소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당사자들의 소리를 넣거나, 당사자들의 검수를 받는 과정들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복희(한울중)**

G — 코로나 상황에서 SNS(유튜브 채널, 블로그, 트위터 등)를 활용한 활동, 운영 등이 있으시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글쎄요. 각색교사모임은 주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G — 앞으로 교사 모임의 계획(연구, 실천 등)을 알려주십시오.

남부 3구의 밀집도는 점점 높아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학교 현장에 부족해서 조바심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각색교사모임은 다문화교육 관련 독서를 읽고 토론을 하고 다문화교육 현장을 다닐 것입니다. 또한, 안산의 사례를 공부하고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의 공간들을 확장하고 밀집 지역의 교육현장을 더 인간답게 교육하는 공간이 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G —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수업 운영 등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 서울초중등문화다양성교육연구회에서 자료집으로 낸 ‘2021 문화다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초·중등 현직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고민하며 연구하여 실제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문화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다문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작품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울시 외 각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문화 다양성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정임(대림중)**

음악 교과에서는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연주 방식도 다른,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의 소리(합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성과 공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수업을 온·오프라인에서 구현해야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각각의 악기들을 소개하고, 현장에서는 각각의 악기들을 직접 다루고 합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유정(한울중)**

일상 속 장면들을 수업의 주제로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문화 다양성이나 다문화에 대해 잘 몰라도 다양성을 존중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일상과 삶에 밀접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더 넓은 곳으로 시선을 확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한채민(신길중)**

학생들과 밀접한 교수 자료는 어제 뉴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시사할 만한 내용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 우리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미세한 차별들을 찾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수업할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다+온센터나 다양성 관련 단체들의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비마이너 자료(장애인 인터넷 신문)도 좋습니다. 자료는 넘치게 많습니다, 다만 이들을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마음이 우선되고 이왕이면 이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 찾아 같이 공부하면 최고로 좋은 수업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박복희(한울중)**

각색교사 모임은 더이상 교사들의 참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서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인원이 이미 초과된 상황이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공유하기에도 큰 규모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교사들끼리의 모임을 만든다고 한다면 tip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울중학교 박복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